

익산 함라한옥체험단지 새단장

제로웨이스트 플랜트인테리어 등 친환경 한옥스테이로 리뉴얼

전북 최대 규모 고택이 자리잡고 있는 함라에서 한옥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한옥체험단지'가 새단장을 끝내고 오는 3일 개관한다.

함라한옥체험단지는 현존하는 전북 주택 중 가장 큰 김인균가옥(전북 민속문화재 제23호)등 삼부잣집과 한옥 몰담길 등 고즈넉한 관광지 힐리에 머물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옥숙박·문화·음식체험관으로 조성돼 있다.

올해 민간위탁 운영권자로 선정된 '(유)예술이 꽃피우다(대표 윤 미)'는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추진했다.

새단장을 통해 한옥숙박체험관은 대청마루에 정취를 더하기 위해 마루 오일스테인 칠 등 시설을 정비하고, 정갈한 멋을 유지하기 위해 문종이를 새



로 붙이고 이불 등 침구류를 전부 교체했다.

친환경 ESG를 선두하는 친환경 한옥스테이로 리뉴얼하고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실천으로 커피자루 원단 생분해 되는 친환경 회분을 활용해 만든

식물들을 인테리어로 선보인다.

특히 범려인구가 늘어난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 전용공간을 6월에 본격

운영해 반려동물과 함께 쉬며, 일하며 즐길 수 있는 한옥 힐링살기가 가능한 워케이션(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관광프로젝트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체험관에서는 쉼이 있는 한옥스테이에 문화 콘텐츠를 강화한다.

방문객과 숙박객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장구·소리북을 이용한 장단비우기, 조통달 명창과 함께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등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외미당에서는 특별한 푸전 국악버스킹 한옥을 활용한 악간·상설공연, 국악·뮤지컬 등을 선사하며 과거 함라 삼부잣집에서 지원한 예술가들이 찾았던 함라의 예술미를 전통을 이어나간다.

/익산=이재준 기자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K리그 관중들에게 직접 찾아가 홍보활동을 펼쳤다.

'2023 익산 방문의 해' 성공을

익산시, 전북현대 홈경기 K리그 관중 대상 캠페인 펼쳐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K리그 관중들에게 직접 찾아가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는 지난 21일 전북현대모터스 홈경기가 열린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K리그 관중을 대상으로 익산 대표 관광지를 알렸다.

이번 홍보 캠페인에서는 경기장을 찾은 1만6,600여 명의 관중들을 대상으로 피켓·현수막·홍보와 함께 공차기 이벤트를 진행해 많은 참여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7m에 달하는 익산관광브랜드 캐릭터 '마리온' 대형 에어 포토존은 경기장을 찾은 축구팬들에게 이벤트 내내 큰 인기를 얻었다.

이번 행사에서 전북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된 익산 관광 홍보물을 제공하여 우수한 관광지를 소개하고 익산 관광을 유도했다.

전북현대 구단에서는 장내 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관중에게 계속 홍보했다.

이날 현장 홍보에서는 젊은 층에게는 아색관광지 '익산교도소세트장', 유럽식 정원인 포털가든과 쭉 뻗은 메타세쿼이아까지 '인생샷' 맛집' 인스타

성지인 아카페정원을, 가족단위 관광객에게는 디아노기즈월드를, 연인·부부에게는 백제왕궁 세계문화유산과 보석박물관 등 맞춤형 관광지를 강조해 설명했다.

김세만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전북현대모터스 구단과 다양한 공동마케팅을 통해 전북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 관광객들에게 익산 관광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2023 익산 방문의 해'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서울 청년들, 익산자원 활용 지역상생창업 도전

서울 청년들이 익산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모델을 만들어간다.

시는 24일 아산나눔재단 기업기정신 플랫폼인 마루 180(서울 소재)에서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인 '2023 NEXT LOCAL(네스트) 로컬 5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특별시, 운영사 무국(주)오케이어스, 익산시를 비롯한 9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가 함께했다.

지역연계형 창업지원사업(네스트 로컬)은 서울청년들이 지역 자치체 지원을 얻어 활용하거나, 지역 내 문제를

익산시는 서울시와 협력해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북지역에서 유일한 기초자체로 전국 9개 기초자체와 함께 네스트 로컬 5기 활동지역 참여자체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네스트 로컬 5기 서울 청년들이 익산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으로 성공적인 지역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익산 로컬정보(특산물, 관광지, 현안 등) 및 창업정보(인프라, 지원사업 등)를 기반으로 서울청년과 익산청년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시각의 창업아이디어 창출과 창업 트렌드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이재준 기자

재난관리평가 전북 최우수기관 선정… 장관 표창 수상

익산시, 전국 최고 재난관리 안전도시 자리매김… 행안부 주관 전국 1위 최우수기관 2관왕

익산시가 정부로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전국 최고 재난안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재난관리평가와 겨울철 대책추진에서 각각 전국 1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23일 '2023 재난관리평가'에서 전리복도 14개 시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재난안전대책 최고 도시로 위상을 높였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관리 역량을 진단·개

선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펼쳐 기후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분야에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관리 등 예방 대비 분야에서 지속적 관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된 익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포상금,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등의 혜택

이 주어진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연이은 영광스런 수상은 우리시민들이 재난대비에 민전을 기해주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재해·재난 없는 안전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름철 기상야변을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상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 발생 시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민전을 기하고 있다.

/익산=이재준 기자

군산시, 국회서 '농특산물 홍보행사' 가져

군산시는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군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군산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흥어·박대·게장·쌀 등 군산의 농·특산물을 홍보, 군산고향 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시와 신영대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군산 흥어와 수제맥주 시식행사도 진행돼 군산의 새로운 명물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군산흥어의 경우 지난 2017년 2월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최근 48%로 겹층 뛰어 전국 1위를 차지한 정도로

군산의 새로운 효자 어종으로 등극하고 있다. 군산 흥어의 경우 미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포획해 상처 없이 깨끗하고 신선하며 가격 또한 저렴해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어 군산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산고향 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 농특산물과 더불어 고향 사랑기부제 단체 제품 홍보를 병행해 농특산물과 군산고향 사랑기부제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홍보 효과를 거뒀다. 특히, 군산출신 연예인 김성환 군산시 홍보대사가 함께해 군산 농특산물과 고향 사랑기부제를 널

리 알리도록 힘을 모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은 산·들·바다 무엇하나 빼지지 않는 없는 것이 있는 지역인만큼 특산물 또한 없는 것이 없다. 우리 군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알려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준 기자



리 알리도록 힘을 모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은 산·들·바다 무엇하나 빼지지 않는 없는 것이 있는 지역인만큼 특산물 또한 없는 것이 없다. 우리 군산의 우수한 농

특산물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알려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준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보석박물관 상징

조형 '영원한 빛' 재탄생

보석도시 익산시의 위상과 자부심을 표현한 거대 보석상징 조형물, '영원한 빛'이 새롭게 탄생한다.

'영원한 빛'은 가로 18m, 세로 18m, 높이 20m 규모로 2006년 7월에 제작 완료해 17년간 보석박물관을 밝혀왔다.

거대 반지 조형물로 호남고속도로 익산 인터체인지를 드나들며 유인으로도 쉽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중심에는 다이아몬드 형상을 배치해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밤에도 화려한 경관조명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시는 오랜 세월 외부 노출로 인한 노후화를 재정비해 백제문화가 살아 숨쉬는 보석의 도시 익산을 표현했다.

반지 중심의 다이아몬드 형상은 8가지 색감이 둘보이는 스테인글리스와 화려한 조명으로 변모해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빛을 발산한다.

/익산=이재준 기자

군산시, '배달의 명수'

첫 이용객 이벤트 진행

군산시 공공비밀앱 '배달의명수'가 배달의 명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과 장기 미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첫 이용고객 할인 이벤트'는 오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달 간 진행되며 배달의 명수 앱을 통해 최초 주문하거나 2023년 배달의명수 주문이력 없는 고객이 행사기간 내 처음 주문하면 자동으로 행사에 응모된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선착순 총 400명에게 1만원 할인 쿠폰을 오는 7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배달의명수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불편사항으로 꼽혔던 부족한 가맹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입점 희망 매장을 주천반아 가맹점 모집에 활용될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입점 희망 매장을 활용할 때는 배달의명수 앱 상단 배너에서 상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군산=이재준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